



한국 간호사들은 한복 차림에 태극부채를 들고 개회식에 참석해 우리의 맛을 세계에 알렸다.

## 한국 간호사들 세계 간호 호흡하며 교류

2017 ICN 학술대회에 한국 간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학술대회는 5월 27일~6월 1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한국 간호사들은 세계 각국에서 모인 간호사들과 만나 교류하며 우정을 나누고, 최신 간호 흐름과 정보를 함께 호흡했다. 다양한 논문발표를 통해 우수한 한국 간호를 널리 알렸다. 대한간호협회는 논문 발표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구두 발표자 2명에게 각 30만원, 포스터 발표자 15명에게 각 20만원을 지원했다.

한국 간호사들은 개회식에 한복을 차려입고 참석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구촌 간호사들은 한국 간호사들과 기념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했다. 한국 간호사들은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을 비롯한 대표단이 입장할 때 태극부채를 흔들며 환호했다.

이미경 제주 늘봄재활병원 간호부장은 “해외학술대회에 참석해 도전하고 경험해보라는 선배님들의 조언을 이제야 뒤늦게 따르게 됐다”면서 “한복을 입고 개회식장에 앉으니 애국자가 된 듯 가슴이 뭉클했고, 국경과 인종을 초월해 간호사는 하나라는 진한 감동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논문 포스터를 발표한 구보연 서울성모병원 소아중환자실 간호사는 “여러 분야의 간호지식과 다양한 관심사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시야가 넓어진 것 같아 기쁘다”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연구하고, 근거에 기반한 질 높은 간호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정 서울아산병원 비뇨기과 전담간호사는 “국제학술대회에서 논문 포스터를 발표하게 돼 기쁘다”면서 “세계 간호사들의 학문적 열정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고, 서로 정보를 나누며 새로운 간호 트렌드를 배울 수 있어 좋았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한국 참가자들이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를 5월 28일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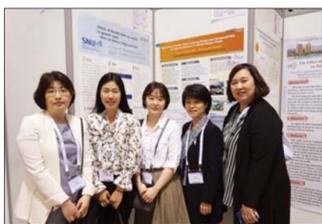
정규숙·주혜진 기자



개회식에서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을 비롯한 한국 대표단이 입장하고 있다.



등록대에서 참가등록 확인을 하고 있는 모습.



논문 포스터를 발표한 한국 간호사들.



왼쪽부터 김모임 전 ICN 회장, 수상자 미야오핀 엔 교수, 수상자 선정위원 회 김의숙·새미안 공동위원장.

## ‘김모임 간호혁신 및 정책영향력상’ 시상식

### 제1회 수상자 배출 ... 엔 교수 등 수상

‘김모임 간호혁신 및 정책영향력상’이 제정된 이후 첫 수상자가 배출됐다. 수상자 선정 첫해이고 우수한 지원자가 많았던 점을 고려해 3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시상식은 5월 27일 열린 2017 ICN 학술대회 개회식에서 진행됐다. 1등 상에는 상금 1만 달러, 2등상과 3등 상에는 각 5천 달러가 수여됐다.

1등상은 미야오핀 엔(Miaofen Yen) 타이완 국립성공대 간호대학 교수가 수상했다. 미국간호학술원(FAAN) 정회원인 엔 교수는 국립성공대 간호대학에 석사과정 ‘IAPN(International Advanced Programme in Nursing)’을 개발해 정착시킨 공로로 수상했다.

이제는 동남아시아 지역 간호사들이 상급교육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리더십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근거기반간호실무, 간호연구와 교육, 리더십 등으로 구성됐다. 학생들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에 힘쓰고 있다. 교육을 마친 간호사들이 교국으로 돌아가 각국에 맞는 커리큘럼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엔 교수는 “글로벌 간호혁신에 기여

하고 보건의료정책에 영향력을 발휘해 오신 김모임 박사님께 존경을 표하며, 김모임상을 받게 돼 매우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엔 교수는 5월 31일 ICN 학술대회에서 특별강연을 했다.

2등상을 수상한 미국의 베스 올버버 간호사와 아레네 트라비스 간호사는 심혈관질환 위험요인을 가진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식과 도구를 제공했다.

3등상을 수상한 덴마크의 카트린느 프리다요프 간호사는 안환자가 가족과 지내면서 가정에서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ICN은 김모임 전 ICN 회장의 기부금으로 ‘김모임 간호혁신 및 정책영향력상’을 제정했다. 2년마다 수상자를 선정한다. 수상자 선정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김의숙 연세대 명예교수와 주디스 새미안 ICN 회장이다.

김모임상 운영에 필요한 기부금은 연세대 간호대학 김모임간호발전기금에서 매년 ICN으로 보내게 되며, 영구적으로 기부기로 했다.

김모임 전 ICN 회장은 대한간호협회 회장,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장관, 세계보건기구(WHO) 간호정책 고문 등을 지냈다. 김모임 전 ICN 회장은 “첫 번째 수상자를 배출하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간호의 미래는 창의성과 혁신에 달려 있으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간호정책으로 개발하고 실현해 나가면서 글로벌 보건의료에 기여하고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

## ■ 크리스천 라이만상 시상식

세계 간호사들의 영예인 ‘크리스천 라이만상’을 린다 에이켄(Linda Aiken)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간호대학 교수와 쉘라 틀로우(Sheila Tlou) 유엔에이즈계획 동남아프리카지원팀장이 수상했다. 시상식은 5월 25일 열린 2017 ICN 학술대회 개회식에서 진행됐다.

크리스천 라이만상(Christiane Reimann Prize)은 인류의 건강증진과 간호전문직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 간호사에게 주는 상이다. ICN 초대 사무총장을 지낸 크리스천 라이만 여사를 기리기 위해 1985년에 제정됐다.

수상자인 린다 에이켄 펜실베이니아대 간호대학 교수는 건강결과와 정책연구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 환자 대 간호사 비율, 간호사의 교육수준, 근무환경 개선이 환자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를 통해 입증하고 근거를 제시한 개척자적인 연구자이다.

셸라 틀로우 유엔에이즈계획 동남아프리카지원팀장은 에이즈와 여성건강 전문가다. 보스와나 보건부 장관을 지냈다. 유엔에이즈계획,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세계보건기구 등에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왔다.

한편 크리스천 라이만상 역대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저명한 간호학자 버지니아 헨더슨(미국), 여성과 인권운



린다 에이켄



셸라 틀로우

동의 대모 대임 니타 바로우(바베이도스), 유럽 간호의 위상을 높인 대임 쉘라 쿨(영국), 일차보건의료 발전과 간호 전문직 위상 강화에 기여한 김모임 전 ICN 회장(한국)과 간호이론가 헬레가트 페플라우(미국), 리더십과 파워의 상징 마그레타 스타일스(미국), 유럽 간호사 위상 강화에 헌신한 콘달레스 후라도(스페인),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헌신한 키르스텐 스토크니히 전 ICN 회장(덴마크) 등이 다.

정규숙 기자 kschung@

## 차세대 간호리더 한자리에 ‘세계간호학생대회’

### 간협, 간호대학생 선정해 참가비 지원

차세대 리더인 간호대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2017 세계간호학생대회(Nursing Student Assembly)’가 5월 27일 오전 9시 바르셀로나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한국에서는 간호대학생 9명이 참석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차세대 글로벌 리더 양성의 일환으로 공모를 통해 최윤영(이화여대), 신재은(서울대), 박규선(전남대) 학생을 선발해 참가비를 지원했다. 연세대 유상민, 이지은, 조예희, 김원희, 조은희, 유영태 학생은 대학의 지원을 받아 참석했다.

이번 학생대회는 ‘인간적 돌봄을 위한 간호교육의 도전 과제(Challenges of nursing education for the humanization of care)’ 주제로 열렸다.

개최국인 스페인을 대표해 에네코 아르멘다리스(Eneko Armendariz) 학생이 의장을 맡은 가운데 ‘간호학생의 관점에서 본 간호교육’을 주제로 열린 토론이 진행됐다.

최윤영 학생이 발표자로 나섰다. ‘Innovative strategies for clinical nursing education. What are student’s views?’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의 간호교육 4년 일원화, 간호교육인증평가 의무화, 간호대학생 실습 시 명찰 달기 의무화, 시뮬레이션 실습교육 등을 소개했다.

최윤영 학생은 “2015 서울 세계간호사 대회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했었는데, 이번에 발표자로 참가하게 돼 감회가 각



세계간호학생대회에 참가한 한국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최윤영 학생이 한국의 간호교육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별하다”면서 “다른 나라 학생들이 시뮬레이션 실습 등 한국의 간호교육에 많은 관심을 보여줘 뿌듯했고, 저도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 학생들은 “나라는 다르지만 같은

고민과 공감대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하나가 된 시간이었다”면서 “ICN에서 간호대학생들이 간호의 미래를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격려해줘서 힘을 얻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지은 학생은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소통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고, 세계간호학생대회에 참석할 수 있어 영광스럽고 즐거웠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간호학생대회에는 ICN 대표자들의 및 학술대회와 함께 열리며, 학생들이 논의한 내용은 대표자회의에서 정식으로 보고된다. 온라인 ‘간호학생 네트워크’가 운영되고 있으며, ICN 홈페이지(www.icn.ch)에서 찾아볼 수 있다.

주혜진 기자 hjjo@

## 간호사, 창조적이고 개혁적인 리더 돼야 “정책테이블로 나가 영향력 발휘하라”

### 학술대회 이슈

2017 ICN 학술대회에서 기조강연과 메인세션을 통해 제시된 이슈를 정리해 소개한다.

0...메리 웨이크필드(Mary Wakefield, 간호사) 전 미국 보건부 부장관은 “간호사와 각종 간호협회는 변혁적 리더십을 위해 정책결정과정에서 적극 참여하고, 미디어와 소통해야 한다”면서 “보다 나은 건강을 위해 간호사는 창조적이고 개혁적인 리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관심을 갖고 앞장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해야 한다”면서 “연구에 근거한 정책을 개발하고, 차세대 간호사를 위해 간호대학생 교육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0...이안 노튼(Ian Norton) WHO 응급의료팀장은 “자연재해, 분쟁, 질

병발생, 테러 등의 상황에서 응급의료팀 간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WHO(세계보건기구)는 응급의료팀의 표준으로 의사 1명당 간호사 3명, 병상 8개당 간호사 1명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응급상황에서는 좋은 의도만으로는, 좋은 마음만으로는 기적이 도우려나 마음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면서 “개인 보다는 팀으로 잘 훈련된 간호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0...레슬리 맨쿠소(Leslie Mancuso, 간호사) Jhpiego 회장은 “간호사 자신을 초대하는 정책테이블이 없다면 스스로 의자를 갖고 가서 자리를 만들어 앉아야 한다”면서 “정책테이블로 나가 보건의료를 변화시켜야 하며, 간호회에서는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간호사들이 파워와 리더십을 갖고 변혁을 주도해야 한다”면서 “보다 나은 보건의료를 위해 간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Jhpiego는 미국 존스홉킨스대 산하 모자보건교육 비영리기관이다. 아프리카와 개발도상국을 위한 모자보건, 가족계획, 에이즈 예방과 치료, 말라리아 예방과 치료 등에 앞장서고 있다.

0...바바라 새틀러(Barbara Sattler) 샌프란시스코대 교수는 “기후변화를 사회적 정의라는 렌즈를 통해 보고 이해해야 하며, 우리는 병든 지구에 사는 건강한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간호사들이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0...줄리아 당컨-카셀(Julia Duncan-Cassel) 라이베리아 여성부 장관은 “간호사는 자신에게 주어진 선한 일을 계속해야 한다”면서 “당신은 삶의 시작과 끝을 볼 것이며, 당신은 많이 웃고 많이 울 것이며, 이것이 바로 간호사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